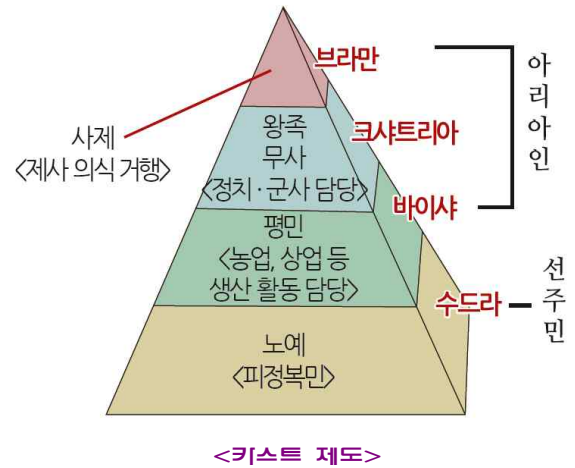


불교의 출현

[새로운 종교의 탄생]

01. 배경

- 기원전 7세기경
 - : 아리아인들이 세운 대규모의 도시 국가들이 갠지스 강 유역에 등장
 - : 통일 국가를 향한 크고 작은 전쟁의 빈번
 - :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의 성장
 - ↳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 의식 반대
 - ↳ 브라만 중심의 사회 질서 비판
- 우파니샤드 철학 등장(기원전 7세기 경)
 - : 범아일여(梵我一如)
 - ↳ 우주의 본체(브라만) = 인간의 본체(아트만)
 - : 해탈 강조



02. 자이나교와 불교 창시(기원전 6세기 경)

지이나교	• 바르다마나 창시 • 윤회 사상 바탕, 카스트(바르나) 제도의 극복 주장 •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철저한 고행과 금욕 강조 ↳ 크게 유행하지 못함
불교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 창시 • 브라만교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 차별 등에 반대 • 인간의 평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 주장 ↳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확산

인도의 통일 제국

[마우리아 왕조(기원전 327 ~ 기원전 180)]

01. 통일 전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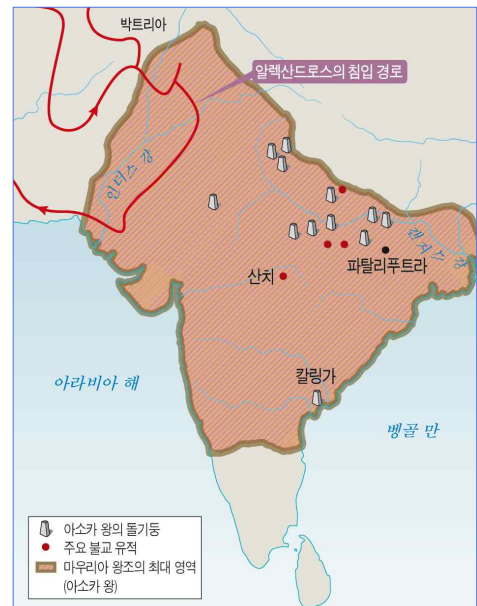
- 작은 왕국들로 분열
- 마가다 왕국
 - : 기원전 5세기 경 북인도 통일
 - : 불교, 자이나교 보호
 - : 알렉산드로스(BC. 356 ~ BC. 323)의 인더스 강 유역 침략으로 쇠퇴



<산치 대탑(스투피)>

02.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 :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인도 북부를 통일하여 왕조 개창
- ★아소카왕(BC. 3세기경, 전성기)
 - : ★칼링가 정복
 - ↳ 남부 일부를 제외한 인도 전역 통일
 - ↳ 석주(돌기둥) 건립
 - :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
 - ↳ 불경 정리, 불교 포교, ★산치 대탑 건립
 - :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소승) 불교 발달
 - ↳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포교단 파견



<마우리아 왕조의 최대 영역(BC. 3C)>

▶석주에 새겨진 아소카 왕의 칙령(『천제고고서』, p.93)



<아소카 왕의 석주>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에 무덤을 파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경청하라! 다른 종교의 교의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라.

인도의 통일 제국

[안드라 왕조(BC. 1C ~ AD. 3C)]

01. 건립

- 드라비다 족이 데칸 고원에 건국

02. 활동

- 브라만교와 카스트 질서 회복
- 로마, 동남아시아와 교역



[쿠산 왕조(30 ~ 275)]

01. 건국과 발전

- 이란 계통 쿠산족의 건국
- 중국, 인도, 이란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독점하면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
- 북부 인도, 중앙아시아 일대에 걸친 대제국으로 성장

<쿠산 왕조의 금화>

02. 전성기

- ★2세기 카니슈카왕
- : 대승 불교 발달
 - ↳ 일반 백성(중생)의 구제를 목표
 - ↳ 부처를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
- : 불경 결집, 산스크리트어 경전 완성



<간다라 불상>

- ★간다라 양식
- :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 지방
- :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의 융합
- : 불교 미술 발달
 - ↳ 인간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불상 제작
- : 대승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전파



<쿠산 왕조의 영역(AD. 2C)>

인도의 통일 제국

[굽타 왕조(320 ~ 520)]

01. 성립

- ★찬드라굽타 1세, 갠지스 강 유역

02. 전성기

- 5세기, ★찬드라굽타 2세
 - : 북인도 전역 통일
 - :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 정비 → 정치 안정
 - : 농지 개간, 교역에 주력하여 경제적 번영
 - : 학문과 예술의 적극 장려
 - ↳ 굽타 양식 같은 독자적인 인도 문화 발전



<굽타 왕조의 영역(5세기)>

03.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

- ★힌두교 성립



<춤추는 시바>

- : 인도의 민간 신앙과 브라만교, 불교 등이 융합
- : 창시자 無, 체계적인 교리 無
- :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라마 등 다신 숭배 → 왕 = 비슈누
- : 누구나 신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용되었고 교리가 단순
 - ↳ 급속하게 대중화
- : 왕조 지배층의 적극적인 후원
 - ↳ 『마누 법전』 중시,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 중시
- : 불교 쇠퇴 → 날란다 사원을 중심으로 교리 연구 지속

- ★산스크리트 문학

- : 브라만 계층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
- : 『사쿠타라』 · 『메가두타』(칼리다사의 희곡), 『마하바라타』 · 『라마야나』(인도 2대 서사시)

- ★굽타 양식

- : 조각(간다라 양식의 그리스적 기법을 극복하고 인도 특유의 곡선미 강조), 그림(독특한 음영법 사용)
- : 아잔타 석굴(불교 사원)과 엘로라 석굴(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
 - ↳ 인도 종교 건축의 최고 걸작,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 한국 · 일본 등의 불교 미술에 영향

04. 자연 과학 발달

- ★영(0)의 개념(브라마 굽타, 『우주의 창조(브라마스푸타 싯탄타)』), ★10진법 사용 등 수학 발달
 - ↳ 아라비아 숫자 체계의 형성에 기여
- : 천문학과 의학 발달,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추산, 지구의 자전설과 지동설 제기

05. 멸망

- :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에프탈의 침략과 왕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다 멸망



핵심 체크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구분	소승 불교	대승 불교
교리	• 상좌부 불교 • 출가자 중심 • 개인의 해탈 중시	• 대중부 불교 • 재가자 중심 • 만민 구제 추구
발전	• 마우리아 왕조 : 아소카 왕	• 쿠산 왕조 : 카니슈카 왕
전파	• 동남아시아(실론 등)	• 중앙·동북아시아



핵심 체크

간다라 양식과 굽타 양식



간다라 불상



굽타 불상



이진티 석굴의 연화수 보살

간다라 양식	굽타 양식
• 머리 모양이 물결 모양이고, 눈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오뎅한 서양인의 모습 •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음	• 옷 주름의 선을 생략하고, 인체 윤곽을 그대로 드러냄 • 얼굴이나 옷맵시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뚜렷이 나타남

▶ **친드라굽타 2세(『천제 지도서』, p.121)**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룩한 인도 굽타 왕조의 제3대 왕으로서, 영토나 문화면에서 현재의 인도의 모습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비크라마디티아(무예와 용맹의 태양)’라는 별칭이 있는데, 한역으로는 초일왕(超日王)이라고 한다. 중앙 인도의 데칸 고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 상대인 나가족의 쿠베라나가를 왕비로 맞아 나가족을 회유하고, 또 다른 경쟁 상대인 바카타카 왕조의 루드라세나 2세에게 딸을 출가시켜 동맹을 맺었다. 또한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강대한 샤카족 왕국을 정복하였다. 중국과 로마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차지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통하여 서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주요 도시에 대학을 세워 학문과 종교를 장려하고, 산스크리트어 문학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 **동남아시아에 끼친 인도의 영향(『천제 교과서』, p.109)**

태국의 '라마야나' 벽화 아유타야 왕조의 이름이 '라마야나'의 야오디아 왕국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태국(시암)은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와섬의 프람바난 힌두 사원 중부 자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마타람 힌두 왕국이 850년 경에 세운 사원으로, 240여 개의 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있는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 시절에 축조된 이래 모든 종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봉헌되었다가 후에는 불교(상좌부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었다.

자와섬에 있는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 8세기 중엽 중부 자와에서 번성한 사일렌드라 왕조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왕조와 문화 전파

- 불교
- 힌두교

인도, 실론, 스리위자야 (7~13세기), 사일렌드라(8~9세기), 보로부두르, 크메르, 시암, 미얀마, 대월국, 부다가야, 히말라야 산맥, 아라비아해, 인도양,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 중국, 이슬람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뱃길을 연결하여, 많은 상품이 거래되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이 인도의 영향 아래 불교와 힌두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5세기에 말라카 왕조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교역로를 따라 이슬람교가 이 일대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굽타 왕조 멸망 이후의 인도]

01. 바르다나 왕조(606 ~ 647)

- 북인도 지역을 재통일하고 성립
- 봉건 제도 실시, 학문과 불교 보호, 당(唐)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교류
- 현장(602 ~ 664), 날란다 사원에서 불경 연구(633 ~ 643)

02. 출라 왕조(9세기 경 ~ 1279)

- 인도 남부 지역
- 실론,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등과 교역

[이슬람의 전파]

01. 이슬람 세력의 진출(북인도, 8C)

- 인도의 분열을 틈타 8세기 초부터 등장

02. 가즈니 왕조(962 ~ 1186)

- 중앙아시아의 튀르크 계통 이슬람 세력이 건국
- 수도 가즈니(아프가니스탄 중동부)
- 북인도의 펀자브 지역 차지
- 페르시아, 튀르크, 이슬람 문화의 융합

03. 구르 왕조(1187 ~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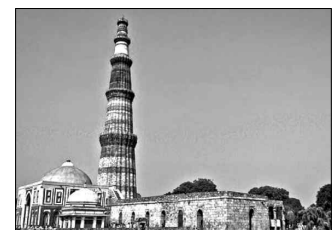
- 가즈니 왕조가 약화되자 아프가니스탄의 본거지 차지
- 구르(아프가니스탄 동부 지방) 중심
- 인도 내륙으로 세력 확산(1190년 경)
- 델리를 장악하고 북인도 지역 대부분 차지 → 불교, 힌두교 사원 파괴

04. 델리 술탄 왕조 시대(1205 ~ 1526)

- ★아이바크 왕조
: 아이바크(구르 왕조 무함마드 왕의 노예 출신, 재위 1206 ~ 1210) 건국
- 수도 델리, 벵골과 카슈미르 지방이 인도 영토로 편입
: 할지 왕조 → 투글루크 왕조 → 사이이드 왕조 → 로디 왕조로 왕조 변천
- 지방의 자치 허용, 힌두교도에 대한 차별 없이 인두세(지즈야)만 징수
↳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죄를 사면 → 이슬람교로 개종 증가
-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 발달
: 우르두어(페르시아어 + 힌디어), 인도·이슬람 건축 양식



<가즈니 왕조의 구르 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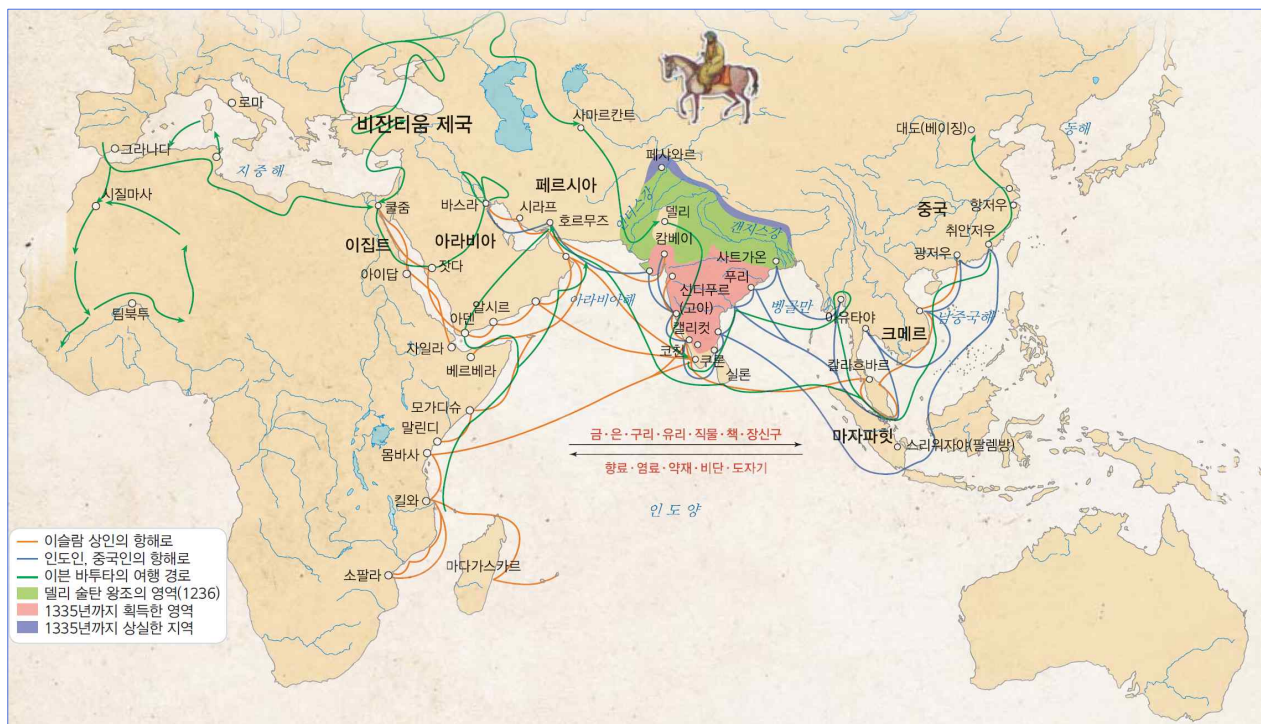


<쿠티브 미나르(1193)>



▶ 인도양 교역(『천제 지도서』, p.108)

8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한 인도양 교역망은 각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교역을 자극했고 문화와 사상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유럽과 아프리카의 상품이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상인들이 가져온 중국산 물품들과 함께 거래되었으며, 인도양 해역의 주요 항구 도시는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과 물자, 정보의 집결지였다.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에서 벌인 활약상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실린 『신드바드의 모험』이다. 인도양을 항해하다가 갇힌 고난을 겪은 끝에 사란디브(스리랑카)에서 보석과 상아를 찾아 대부호가 된 신드바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힌드바드(인도의 바람)라는 의미이다.



한편, ‘아랍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1304 ~ 1368)는 ‘이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나 간다.’라는 목표 아래 대서양에서 중국까지 30년(1325 ~ 1354년)에 걸친 대장정에 나섰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 이집트와 시리아, 소아시아의 오스만 제국,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 등을 돌아보며 이슬람 세계의 저력과 대규모 교역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가 남긴 『여행기』는 14세기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자연환경, 사회 제도와 풍습들을 꼼꼼히 기록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무굴 제국과 힌두 · 이슬람 문화

[무굴 제국(1526 ~ 1858)]

01. 건국

- ★**바부르**(1483 ~ 1530)
: 티무르(부계) + 칭기즈 칸(모계), 재위 1526 ~ 1530
: 북인도 진출 → 델리 술탄 왕조 정복(파니파트 전투, 1525) → 건국(델리, ★1526년)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 1530년 바부르가 죽기 전 아들 후마윤에게 남긴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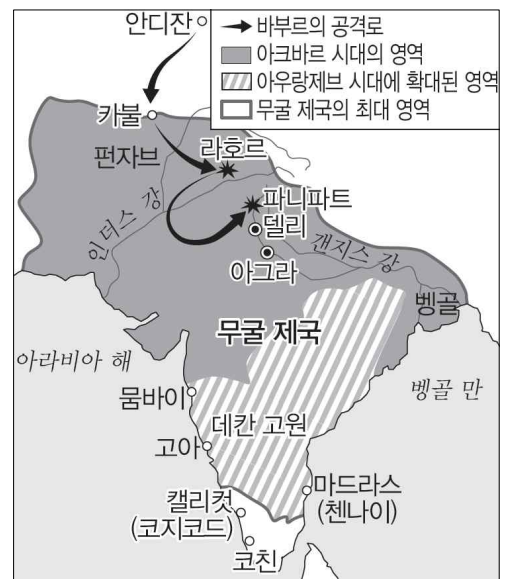
02. 발전

- ★**아크바르 황제**(③, 재위 1556 ~ 1605)
: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한 인도 전체를 통일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도모
↳ 비(非)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즈야 폐지(1579)**
↳ 개종한 힌두교도들이 다시 힌두교로 개종할 수 있는 법령 공표
↳ 힌두교도의 관료 등용
↳ 라지푸트족 등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 만삽다르(행정 관료 조직)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 → 농업 생산량 향상
: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마련

- 샤자한(⑤, 재위 1627 ~ 1658)
: 타지마할 묘당 축조(아그라, 1631 ~ 1653)

- ★**아우랑제브 황제**(⑥, 재위 1658 ~ 1707)

- : 남부 인도를 장악하여 최대 영토 확보
- : 잦은 전쟁으로 재정 악화
- : 이슬람 우대 정책 추진
↳ ★**지즈야 부활(1679)**, 힌두교 사원 파괴, 타 종교의 축제 금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 강제
↳ 북서부의 힌두 세력인 ★**라지푸트족의 반발**
: 북부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 중부 인도 ★**마라타 동맹의 반란**
: ★**비비 까 마크바라 건축**(아우랑가바드, 1678)



<무굴 제국의 발전>

03. 쇠퇴

- : 종교적 갈등 심화
- :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동서 해안 지방 침투 → 악화 가속화

[무굴 제국(1526 ~ 1858)]

04. 경제

- 국내
 - :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시장과 도시 성장, 화폐 경제 활성화
- 대외 무역
 - : 인도양 무역 발달
 - : 면직물, 견직물, 향신료 등 수출 → 영국 산업 혁명의 계기
 - :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서남부 해안에 무역 기지 건설

05. ★힌두 · 이슬람 문화

1) 종교

- ★시크교
 - : 나나크(1469 ~ 1538) 창시
 - : 유일신 신앙, 인간 평등[싱(Singh) → 남성들의 성씨], 우상 숭배 금지
 - : 깎지 않는 머리카락과 수염, 나무 빗, 단검, 쇠 팔찌, 속바지
 - : 황금 사원(신의 집, 암리차르, 1604)



<황금 사원>

2) 언어

- ★우르두어
 - : 힌두어를 기본으로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이 융합
- 페르시아어
 - : 공식 문서에 사용

3) 건축

- ★타지마할 묘당(아그라)
 - : 이슬람 양식
 - ↳ 아라베스크 무늬, 돔 지붕, 4개의 첨탑, 아치형 입구
 - : 인도 양식
 - ↳ 연꽃무늬, 만자(卍) 무늬
 - : 인도 · 페르시아 양식
 - ↳ 투각(透刻), 격자(格子) 세공
- 레드 포트(델리, 1639 ~ 1648)



<타지마할 묘당>

4) 회화

- 무굴 회화
 - : 페르시아 세밀화의 영향 아래 힌두 양식이 결합된 세밀화가 크게 유행

개념 Check

- ① 인도에서 () 왕조의 아소카왕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쿠산 왕조는 ()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발전하였다.
- ③ 인도 문화와 ()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은 중국을 거쳐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 ④ 힌두교는 ()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 종교 형태를 갖추었다.
- ⑤ 인도의 2대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는 『마누법전』과 함께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 역할을 하였다.
- ⑥ 굽타 왕조 시기에 미술에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된 () 양식이 나타났다.
- ⑦ 아이바크의 왕조 개창 이후 델리를 수도로 이슬람 왕조가 연이어 세워지면서 () 시대가 전개되었다.
- ⑧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비(非)이슬람교도에 대한 인두세인 ()를 폐지하였다.
- ⑨ () 황제는 인도 남부까지 장악하여 무굴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넓혔다.
- ⑩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왕비를 위해 세운 () 묘당은 힌두·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실전문제

01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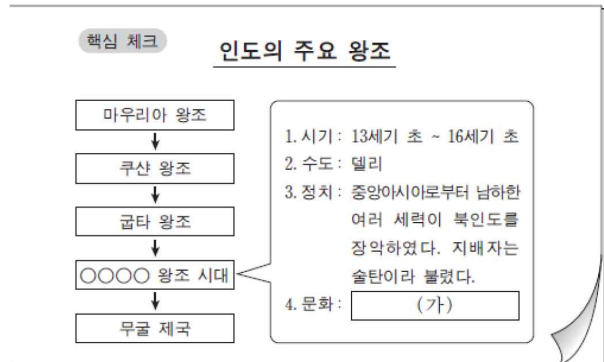


- ① 우르드어가 사용되었다.
- ② 쿠티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 ③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 ④ 아소카 왕이 산치 대탑을 세웠다.
- ⑤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다.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4-수능]



- ① 힌두교가 출현하였다.
- ② 이슬람교도가 늘어났다.
- ③ 간다라 미술이 나타났다.
- ④ 산치 대탑이 건설되었다.
- ⑤ 상좌부 불교가 성행하였다.

03

(가), (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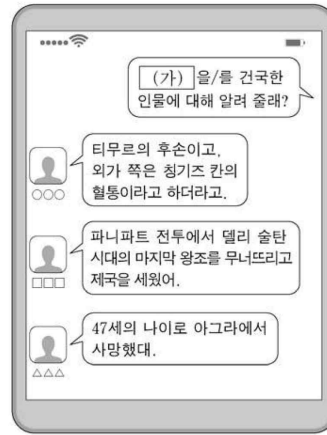


- ① (가) - 타지마할을 건립하였다.
- ② (가) - 티무르 제국을 창건하였다.
- ③ (나) - 지즈야를 부활하였다.
- ④ (나) -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렸다.
- ⑤ (가), (나) - 마라타 동맹의 반란에 직면하였다.

04

(가) 제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수능]



- ① 『샤쿠타라』가 저술되었다.
- ②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 ③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 ④ 쿠티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 ⑤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였다.

인도의 민족 운동

[영국의 인도 지배]

01. 무굴 제국(1526 ~ 1858)의 쇠퇴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 심화
- 엘리자베스 1세(1558 ~ 1603) 때 ★동인도 회사 설립(1600)
- 영국과 프랑스 →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

02. ★플라시 전투(1757)

- 영국 → 플라시에서 프랑스 · 벵골 연합군 격파
- 영국의 벵골 통치권 장악(조세 징수권 획득, 1765),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 확보
: 인도를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조성
: 인도인에게 많은 세금 부과, 인도의 전통문화와 종교 무시
- ★인도 통치법 제정(1773)

03. 지방 세력의 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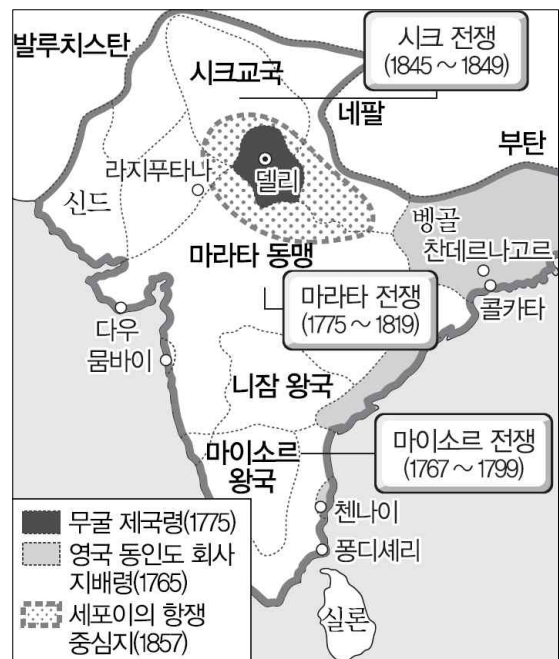
- 마이소르 왕국, 마라타 동맹, 시크교도 등의 봉기
↳ 영국의 진압과 세력 확대

◎ 세포이(sepoy)

페르시아어로 병사라는 뜻이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인 중에서 뽑은 용병을 의미한다.

04. 세포이 함쟁(★1857 ~ 1859)

- 영국의 침략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불만 증가
- 세포이의 종교적 갈등
-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확대
- 델리를 점령하고 북인도까지 장악
↳ 내부 분열과 영국의 반격으로 진압
- 무굴 제국 황제의 폐위
- ★인도 통치 개선법 제정(1858)
- ★동인도 회사 해체(1876)
-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1877)
: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 황제 겸임



<지방 세력의 반란과 세포이 함쟁>

인도의 민족 운동

[브라흐마 사마지(Brahma Samaj) 운동]

01. 결성(1828)

-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 전개
- ★람 모한 로이(1772 ~ 1833) 주도

02. 활동

- 순수 힌두 교리로의 회귀, 우상 숭배 배격
- 카스트 제도 반대, 사티(Sati, 과부의 화장) 등의 폐습 타파
- 여성의 권리 신장, 인도인의 교육 확대 주장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

01. 결성 배경

- 인도의 민족 운동 확대
- 영국에 협조적인 인도의 지식인, 관리, 민족 운동가들을 지원하여 결성(뭄바이, 1885)

02. 활동

- 초기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점진적·합법적 개혁을 통해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
- 영국의 ★벵골 분할령 발표(1905) →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분열을 통해 인도 민족 운동의 약화 시도
- ★콜카타 대회(틸라크, 1905)와 반영 운동 전개
: 영국 상품 불매, 국산품 애용(스와데시), 자치 획득(스와라지), 국민 교육 진흥 등 4대 강령 채택
: 분리 독립을 추구하던 무슬림들도 합세 → 이슬람교도 연맹(1906)의 인도 국민회의 지원
- 벵골 분할령 취소(1911) →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인정

◎ 롤렛(Rowlatt) - 법

영국이 인도의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영국에 저항한 인도인을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인도의 민족 운동]

01. 간디(1869 ~ 1948)의 사티아 그라하(진리 추구) 조직과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전개

- ★롤렛법(1919) 폐지 요구 → 소금 행진(1930, 3월)

02. 네루(1889 ~ 1964)의 인도 독립 동맹(1929)

- 무력 투쟁을 통한 완전 독립과 납세 거부, 농촌 근대화를 위한 공업화·산업화 주장

03. 영국, 각 주의 지방 자치 인정과 독립

- ★신인도 통치법(1935) →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자치권 인정
- 인도와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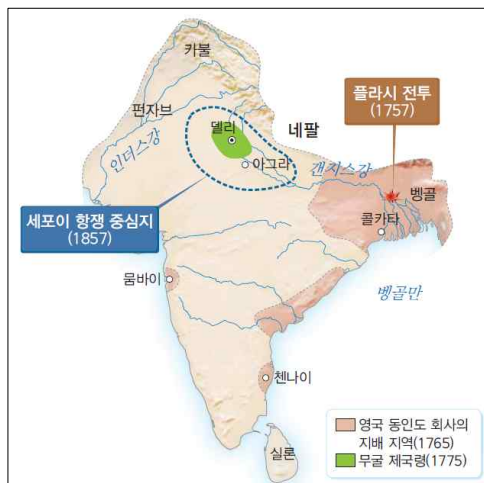
▶ 락슈미 바이의 저항

락슈미 바이(1835 ~ 1858)는 작은 토후국(土侯國,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보호국으로 있던 나라) 잔시의 왕비였는데, 1853년 락슈미 바이의 남편이 죽자 영국 동인도 회사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잔시를 강제로 병합하였다. 락슈미 바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조치에 저항하여 스스로를 여왕이라 부르며 영국에 대항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 1858년 영국군이 잔시를 점령하자 락슈미 바이는 인도 북부 독립 운동을 이끌고 있던 나나 사히브의 군대와 손을 잡고 중나강 남쪽 일대를 차지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어 영국군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락슈미 바이는 영국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23세의 나이로 전사하였다.



<락슈미 바이>

▶ 세포이 항쟁(1857 ~ 1859)과 인도 통치 개선법(1858)



제1조 지금까지 동인도 회사가 점유하거나 통치하였던 영토와 그 권력을 영국 여왕 폐하가 대신한다.

제3조 여왕 폐하의 국무 위원 중 한 사람은 동인도 회사가 가졌던 권력과 의무를 모두 가지고 실행한다.

제39조 동인도 회사의 토지, 부동산, 금전, 저당품, 상품, 재산, 그 밖의 부동산과 동산은 이 회사의 자본금과 배당액을 제외하고는 폐하에게 주어진다.

- 인도 통치 개선법

▶ 인도 국민회의의 콜카타 대회(1906)



<벵골 분할령(1905)>

벵골 분할에 벵골 인은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언젠가는 바로잡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와데시(국산품 애용)**는 요 근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몇 년 전부터 봄베이(뭄바이)에서 존재해 오던 것입니다. 나는 자유 무역주의자입니다. 콤팩트 협회(자유 무역 협회)의 회원으로서 20년간 집행 위원회에서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데시가 경제적 혼란 상태에 있는 **인도에서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영국인에게 인도의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경제적 혼란을 150년도 아니고 하루라도 영국이 감당해 보는 것이 어떨지 물어봅시다. 영국의 신사숙녀는 감당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의장 나오로지(1825 ~ 1917)의 연설

개념 Check

- ① 영국은 세포이의 항쟁을 계기로 무굴 제국 황제를 폐위시키고 1858년 ()을 제정하였다.
- ② 람 모한 로이가 중심이 되어 순수 힌두교 교리로의 복귀를 주장한 ()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의 ()에 대항하여 콜카타 대회를 열고 반영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1929년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한 ()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다.

실전문제

01

밀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수능]

“새 탄약통을 지급하면서 힌두교도들에게는 소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주었고,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주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다. 마침내 미루트에서 용병 3개 연대가 봉기 하였다. 그들은 노년의 무굴 황제를 내세우고, 황제의 이름으로 각지에 동참을 호소하였다.

- ① 플라시 전투 직후에 발생하였다.
- ② 인도 국민 회의의 지원을 받았다.
- ③ 스와데시·스와라지를 구호로 삼았다.
- ④ 롤렛(로레트)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⑤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9월 모의평가]

전  보 - 인도 전신국 -			
날 짜	○○○○년 ○○월 ○○일	시 간	□□시 □□분
보내는 사람	△△ 신문 기자 ◇◇◇	받는 사람	△△ 신문 편집국
금일 병골 각지의 대표와 수많은 학생들이 콜카타의 공회당에 모여 채택한 결의문을 전송함. 1. 병골 분할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 3. 병골 분할령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 ① 롤렛법의 시행을 촉구한다.
- ② 인도 독립 동맹의 결성을 지지한다.
- ③ 세포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 ④ 영국 상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벌인다.
- 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밑줄 친 ‘법’이 제정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가)	(나)	(다)	(라)	(마)	
플라시 전투 발발	세포이 항쟁 발발	인도 국민 회의 결성	뱅크 분할령 발표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시대	시대 특징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인더스 문명	① 인더스 강 유역 : 드라비다 족, 하라파 · 모헨조다로(계획 도시) : 아리아족의 문명 파괴	• 상형문자 사용 • 메소포타미아와 교류 • 하라파 인장, 일각수 인장
	② 갠지스 강 유역으로 아리아족의 남하 : 철기, 브라만교(다신교), 베다, 카스트 제도	• BC. 7C, 귀족과 평민의 성장 : 우파니샤드 철학, 자이나교 · 불교 등장★
마우리아 왕조	• 마가다국의 북인도 통일 • BC. 326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 최초 통일 왕조★ • BC. 3C 아소카왕 때 전성기★	• 불탑(스투파) 제작★, 무(無)불상 시대 • 아소카 왕의 석주(돌기둥)★ • 상좌부 불교(소승, 남방 불교) 발달★ • 제3차 불전 결집
쿠산 왕조	• AD. 2C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 • 실크로드의 요충지 장악	• 대중부 불교(대승, 북방 불교)★ • 제4차 불전 결집, 간다라 불상 제작★
굽타 왕조	• 4C 초 찬드라굽타 1세 • 마우리아 왕조의 부흥 목표 • 북인도 통일,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동서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 •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	• 고전 문화의 황금기★★ : 힌두교 성립과 왕조의 지원(『마누 법전』) : 산스크리트 문학(『사쿠타라』 · 『메가두타』)★ : 굽타 양식(아잔타 석굴, 인도 고유 불상)★ • 자연과학 발달, 영(0)의 개념 사용
이슬람화	• 8C, 이슬람 세력의 북인도 진출 • 10 ~ 12C, 가즈니 · 구르 왕조 • 1205 ~ 1526, 델리 술탄 5왕조★	• 힌두교에 대해 관용적 태도
무굴 제국	• 바부르(티무르 후손) 건국(1526) • 아크바르 대제 → 지즈야 폐지 • 아우랑제브 → 최대 영토 확보, 지즈야 부활 • 마라타 동맹, 시크교도의 반란	• 면직물 중심의 상공업 발달 • 인도 · 이슬람 융합 문화 : 타지마할 묘당, 시크교★ : 무굴 회화(페르시아 세밀화의 영향)
민족 운동	1) 영국의 인도 지배 ① 동인도회사 설립(1600) ② 플라시 전투(1757) : 對 프랑스, 인도 독점권 확보, 인도통치법 제정(1773)과 간접 통치 ③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1828) : 람 모한 로이 중심, 순수 힌두 교리로의 복귀 주장 ④ 세포이 항쟁(1857 ~ 1859) : 무굴 제국 멸망, 인도 통치 개선법(1858), 영국령 인도 제국★ ⑤ 인도국민회의 설립(1885)★, 벵골분할령(1905), 콜카타 대회(1906), 벵골분할령 취소(1911)	
	2) 제1차 세계 대전 중 자치권 허용 조건으로 영국에 협력 → 영국의 약속 불이행 ① 톨렛법(1919) :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암리차르 사건 발생(1919) ② 사이먼 위원회 파견(1927) :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하기 위해 위원회 파견 ③ 국민회의 의장에 네루 당선(1928) → 인도 독립 동맹(1929), 간디의 소금 대행진(1930)★ ④ 신인도 통치법(1935)★ 제정(→ 자치 허용), 국민회의파의 반영 운동 지속	
	3) 인도의 독립 · 분열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1947. 8. 15) → 민족적, 종교적 대립 격화 ②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 연방으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 ③ 파키스탄의 동 · 서 분리,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1971) ④ 영국 자치령으로 독립한 실론은 국호를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변경(1972)	